

지역 채솟값 하락에도 먹거리 물가 부담 여전

광주 2주새 오이·고추 등 30% ↓
 전남 출하량 증가로 채소류 하락
 빵·라면 등 가공식품 상승세 지속

광주·전남 지역에서 상추와 오이 등 채소류 가격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빵과 라면 등 생활식품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먹거리 물가 부담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광주·전남 농수산물 가격정보지 얼마오? 2605호'에 따르면 전남 기준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판매된 청양고추(100g)와 오이(취정·10개) 가격은 각각 1천100원과 1만원으로 2주 전보다 각각 31.3%, 33.3% 하락했다.

또 상추(청·100g)는 480원으로 2주 전보다 27.3% 내렸고 애호박(1개)은 2천100원으로 16% 하락했다. 대파(1kg)는 2천500원으로 6%, 생강(1kg)은 9천600원으로 3.4% 내려가는 등 주요 채소류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전남 지역에서도 채소류 가격이 하락했다. 상추(청·100g)는 1천380원에서 1천105원으로 19.9%, 오이는 1만5천700원에서 1만600원으로 3.2% 내렸다. 청양고추는 2천210원에서 1천710원으로 22.6%, 애호박은 2천625원에서 1천995원

로 24.0% 각각 하락했다. 열무(1kg) 역시 4천550원에서 3천120원으로 31.5% 내려가는 등 주요 채소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이 같은 채소류 가격 하락은 기존 상승과 함께 시설재배 물량 출하가 늘어나면서 시장 반입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봄철로 접어들면서 산지 출하가 확대되자 공급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aT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산지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채소류 공급이 증가해 일부 품목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봄철로 접어들면서 출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도 점차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채소 가격이 내려가고 있음에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통계포털(KOSIS)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광주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품목포함, 2020=100) 중 라면은 지난해 2월 119.3에서 지난달 127.2로 6.6% 상승했다.

빵 및 곡물은 같은 기간 119.5에서 124.6으로 4.3% 올랐고 스낵과자는 110.4에서 116.7로 약 5.7% 상승했다.

이 밖에 쌀은 104.2에서 122.4로 17.5%, 돼지고기는 116.4에서 128.2로 10.1% 올라 주요 식재료 가격 역시 전반적인 오름세를 보였다.

전남 지역도 상황은 비슷했다.

라면은 같은 기간 120.1에서 126.2로 5.1% 상승했고 빵 및 곡물은 124.1에서 129.4로 4.3% 올랐다. 스낵과자는 113.7에서 117.3으로 3.2% 상승했으며 쌀은 103.1에서 119.7로 16.1%, 돼지고기는 115.5에서 120.0으로 11.7% 상승하는 등 주요 식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이어갔다.

2월 광주·전남의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4%, 1.8% 상승하며 비교적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쌀과 돼지고기, 라면 등 주요 식품 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태호기자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 장애여성 맞춤형 지원 성과

최근 3년간 67명 취업...매년 증가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가 추진하는 '광주시 장애여성 취업지원사업'이 지역 장애여성의 경제 자립을 돕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10일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총 67명의 장애여성이 취업에 성공했다.

취업 인원은 2023년 20명, 2024년 22명, 2025년 25명으로 매년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참여 기업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장애여성의 취업 기회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 자동차 시트 제조업 등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카페, 사무보조, 회계 등 서비스와 사무직 분야까지 확대되면서 구직자의 역량과 희망 직무를 고려한 맞춤형 취업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취업 이후에도 직장 적응 상담과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취업자의 60% 이상이 3개월 이상 근속하는 등 안정적인 고용 유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센터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참여기업과 협력기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장애여성 일자리 발굴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은 참여자 발굴, 직무교육, 기업 연계 취업 매칭,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 체계로 운영된다.

특히 기업과 협력기관이 함께 장애여성 구직자를 발굴하고 현장 실습과 채용 연계를 통해 실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또한 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직무교육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 경쟁

력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는 AI 데이터 사무지원 직무교육 10명과 취업연계형 직무교육 40명 등 총 50명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이후에는 기업 맞춤형 취업 매칭과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에도 상담과 간담회, 네트워크 활동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지원한다.

김미희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은 "장애여성의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서는 지역 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직무 기회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안태호기자

광주일자리재단-기술보증기금 평동·하남산단 중소기업 지원 협약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10일 "기술보증기금 호남지역본부와 하남·평동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들을 위한 보증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기화된 고금리 기조와 대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산단 입주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자금 조달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재단은 하남·평동산단 입주기업의 보증료 일부를 직접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 및 사업 운영 전반의 협력체계를 맡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발판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탤 계획이다.

/안태호기자



영농철 앞두고 농기계 수리 점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작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농협전남본부의 농기계순회수리 및 안전점검이 10일 고흥군 풍양농협에서 열려 NH농기계순회정비단과 농기계 생산업체 기술자가 수리를 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aT, 북미시장 진출 속도낸다

애너하임 국제식품박람회서 14곳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0일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애너하임 국제식품박람회(Natural Products Expo West)'에 참가해 총 270건, 3천200만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45회를 맞이한 NPEW는 전 세계 130여 개국에서 3천500개 이상의 식품기업이 참가하며 매년 6만명 이상의 바이어와 식품 관계자들이 방문하는 유망, 자연식품 분야를 선도하는 미서부 최대 규모의 박람회로, K-푸드의 글

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무대다.

이번 박람회에서 aT는 14개 우수 K-푸드 수출업체와 함께 통합 한국관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스낵, 음료, 면류, 소스류, 건강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또한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참가 기업 제품을 집중 소개하고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김밥 시식과 함께 유자·배·수정과 슬러시 음료 시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전기전 aT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박람회는 K-푸드의 미국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체협 중심

마케팅과 콘텐츠 기반 홍보 전략을 강화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미국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세계 최대 식품 소비 시장으로 꼽히며 향후 시장 성장성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Fortune Business Insight)에 따르면 미국 식품서비스 시장은 2024년 약 1조2천억달러 규모에서 2032년 약 2조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북미 시장은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주력 시장으로 주목 받고 있다.

2025년 기준 한국 농식품의 대미 수출금액은 약 18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과자류(29억6천37만달러), 라면(2억5천474만달러), 쌀(1억4천902만달러), 소스류(9천213만달러), 음료(9천104만달러) 등이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안태호기자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제품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FREE 배송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TRO

최고의 명품 퍼크골프채
아스트로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가자력 ₩ 1,18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8g/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보 완전해결



소비가자력 ₩ 1,38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A5

최적의 밸런스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된 타구감



소비가자력 ₩ 80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량9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